

맑은 하늘을 기다린다.

서울 연주소등학교

6학년 주예린

맑은 하늘과 맑은 풍경, 맑은 공기 속에 숨쉬는 아이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여럿이 큰 나무밑동을 둘러싼 채로 빙글빙글 돌고, 선생님은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림. 이런 그림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인공의 행복한 유년시절을 그려내는 장면에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에 그런 풍경을 보기에겐 쉽지 않다. 내가 13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런 풍경은 TV속에서나 접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협소한 미끄럼틀과 모래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갈 위험을 방지한 보호벽이나 키 큰 문들 뿐이었다. 요즘에는 야외체육을 할 때에도 사실상 자유로움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가끔 친구들이 이를 보이며 크게 웃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른 친구가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였을 때이다. 모든 걸 그대로 말하자면 5학년과 6학년, 현재가 '미세먼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년도인 것 같다.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들은 때는 4학년(2016년도)~5학년인 것 같다. 처음 알게 된 계기와 미세먼지와 나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 체육시간, 일주일에 약 2번 정도 있었던 그 기대 총만한 시간에 '미세먼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보건실과 교무실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인해 야외활동을 금하라고 메신저가 왔었다. 교실의 아이들은 메신저 내용을 받고, 전달해주신 선생님을 원망하였고, 선생님께서는 미세먼지가 오는 이유와 미세먼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때, 친구들의 표정은 너무 서운하고 시무룩해서 잊을 수가 없다. 몇몇의 체육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던 친구들은 자포자기한 표정이어서 매우 안쓰러웠다. 미세먼지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농작물에게 달라붙어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왔고, 하늘은 노란기와 뿌연 먼지로 가득 찼다. 몇 일 동안은 뉴스에 웬만하면 외출은 자제하라고 방송되기도 하였다. 덕분에 아이를 키우

는 부모님들의 얼굴엔 걱정하는 기세가 역력하고, 아이들은 야외수업이나 활동의 여부를 자꾸 확인하게 되었다. '마스크 꼭 끼고 다녀.' 라는 새로운 소리로 아이들의 지겨움을 사게 되었기도 하다.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이것들이 조금씩 걷히면 이따금 머리도 말끔하고 날이 빠르게 느껴진다. 특히, 푸른 하늘이 진풍경인 가을에는 하늘에 구름이 적어 보일 때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의 소식이 끊기듯, 심장이 내려앉고 기분이 축 쳐진다. 친구들이 자주하던 '씨씨씨' 의 노래가사처럼 '푸른 하늘 은하수'를 가보고 싶어지기도 하며 한 편으로는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하고 안쓰러워진다. 파아란 하늘아래 나무그늘에서 돛자리 하나를 피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쉬는건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7살 때의 기억 속 양재시민의 숲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밝은 빛,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서 뛰노는 게 그리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바라고 있고, 어제도 바랬고, 내일도 바랄 푸른 하늘을 기다린다.